오륙도 칼럼

진시황의 사절단이 문현동에 왔다

곽 태 욱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진시황의 사절단이 문현동에 왔다. 2233년 전의 일이다. 사절단 단장의 이름은 서복이었다. 그런 그를 기념하기 위해 '서시과차'라 새긴 돌비석이 일제 때까지만 해도 장고개를 오르는 길목 어디쯤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서시과차라는 말은 '서복이 인적이 있는 이곳을 지나가다' 정도로 풀어볼 수 있다. 이를 읽을 때에는 현지어 발음에 따라 '서불과차'라고도 한다.

그런데 서복의 기념 돌비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 일제 때의 일이라 증언해줄 만한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된 것이다. 다만 70년대 초 지금의 수영로 대로변 3차선쯤에 서복의 기념석이 인도 한쪽에 머리를 쏙 내밀고 비스듬히 박혀 있던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있다. 그곳은 지게골복지관 앞 대로변쯤 된다. A4용지보다 조금 더 컸다는 그 기념석이 수영로 확장공사 때 아스팔트 밑에 깔려버렸는지, 아니면 폐기물더미 속에 쓸려갔는지 흔적조차 없다.

기원전 219년, 진나라를 출발한 서복의 당시 신분은 방사(도술을 닦는 사람)였다. 그럼에도 동남동녀 3천명과 종사자 2천명으로 원정단을 꾸렸다. 중국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불사에 대한 갈망도 가히 절대적이다. 하지만 지방순행에 나섰던 진시황은 서복의 귀환도 못 보고 쉰 살의 나이로 객귀가 되고 만다.

서복 일행 불로초 찾아 원정

여기서 노도 같은 의문이 밀려든다. 이 엄청난 인력이 배로만 이동했을까? 과연 5천명을 이동시킬 수 있는 대선단이 꾸려질 수는 있었을까? 항해 기술이 21세기보다 더 발달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동경로는 이러한 의문점에 젖어들면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겨우 그려볼 수 있다.

서복은 먼저 삼신산을 향했다. 삼신산은 중국의 전설에서 보하이(발해)만 동쪽의 봉래산·방장산·영주산을 일컫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봉래산), 지리산(방장산), 한라산(영주산)을 일컫는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영약을 구하지 못하자 우리나라로 건너왔겠지만, 서복 일행의 동방 원정은 대략 고조선 후기쯤 된다. 이때로부터 불과 3, 4백년 뒤인 서기 48년 무렵 지금의 김해 중심으로 가야문명이 발흥해서 철기, 도기 등을 해상교통로를 통해 중국과 교역을 왕성하게 했다는 가락국기 등의 기록에서 유추해 보면, 당시에는 미개척 항로였을 테지만 서복 일행도 비교적 안전한 이 뱃길을 택하지 않았나 싶다. 다만 그가 금강산부터 갔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항로 추정이다.

지리산 일대에도 흔적을 남긴 그가 부산에 첫발을 내디딘 곳은 문현동이었다. 바로 광선대(강선대)가 그곳이다. 이곳을 편하게 부를 땐 '강선대'라고 한다. 강선대란 신선들이 노닌 터, 혹은 신선들이 내려온 곳이라는 뜻이다. 배정고등학교 운동장과 연접해 있는 산으로 지금의 해운파크맨션 일대까지이다. 행정구역상으론 문현4동이며, 장고개를 이웃해서 그 정상에 서면 우암동과 앞바다가 내려다보인다.

문현동 강선대에 흔적 남겨

신선들이 정말 이곳에 내려와 노닐었을까? 지금의 해운파크맨션이 들어서기 전인 60년대 초엽의 기억으로도 가당치 않은 상상이다. 그땐 그저 평범한 산이었고 생김새도 두루뭉수리 했던, 조금 큰 마을 뒷산 정도였다. 한 뼘도 안 되는 밭떼기들이 몇 군데 경작되고 있었고, 그곳을 타고 넘으면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고 알려진 장자터로 연결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면 까마득한 옛날에는 정말 신선들이 노닐 정도로 기운이 충만했던 산이었을까? 이곳으로 내려온 신선들이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영도 봉래산과 용당의 신선대를 오갔던 기점이었을까? 그래서 서복은 방사의 도력으로 그 흔적을 더듬어 보려고 광선대(강선대)부터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저런 추측만으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서복의 전설이 충분한 가치를 지닌 현재진행형의 원형문화라는 점이다. 이것은 관광자원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유서 깊은 구전이고 전래된 문화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서복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전설이 되게 하여야 한다. 나름의 소양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창조적 저작물을 만들면 가능한 일이다.

소설가
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선용의 1000자 지혜 (119)

목인석심(木人石心)

살다보면 누군가가 다가와 탈콤한 말로 유혹할 때가 있다. 들어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손해볼 것, 나쁠 것 하나 없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왠 떡이냐 하며 미끼인 줄도 모르고 굄에 넘어가 꼭두각시 놀음에 빠져 자신을 잃고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러다 엉뚱한 일이 터져서야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후회한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을 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이용하기 좋아서일까? 그가 말한 것이 내가 처음 바라고 기대했던 것일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의롭고 올바른 것인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먼저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나쁜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晉)나라 때 강남에 하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일이 있어 낙양에 갔다. 당시 조정에 태위로 있는 가충이 하통이 낙양에 왔다는 말을 들었다.

"초야에 묻혀있지만 모두가 존경해마지않는 명사가 오셨다니 만나봐야지." 가충의 생각은 하통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현재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하통도 높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말을 들어 이미 그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다. 가충이 와서 말했다. "지금 인재가 필요한데 벼슬할 생각이 없는가?"

하통은 머금고 있던 미소를 지우고 한 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나 가충은 물러서지 않고 다른 제안을 했다. "저기에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많은 병사들이 보이는가? 자네가 내 제안에 응한다면 그들의 지휘권을 모두 자네에게 넘겨주지. 자네는 저들의 대장이 되는 거야. 어떤가?"

하통은 가충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충은 그것으론 하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리따운 가기(歌妓 : 노래를 잘하는 기생)들을 불러 사람의 마음을 끄는 노래와 춤을 추게 하고 하통의 대답을 유도했다. 그러나 하통은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걸 본 가충은 탄식을 하며 "하통은 정말 나무로 만든 사람이며 돌로 만든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탄식했는데,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통 같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땅을 울리다

손에서 떨군 과자 부스러기 하나
밟으려는데 개미 한 마리
쿵 소리 듣더니 날름 뛰어와
주위를 둘러보며 빙빙
제 몸보다 백 배 큰 바윗덩이
손으로 만져 보고 머리로 밀어 보고
단단히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벽
안되겠는지 왔던 길로 고개 돌린다

꽁무니 뺀 지 얼마쯤 지났을까
뒤틀려 짜개진 흙 밭 물고가 트고
꼬리에 꼬리 물고 적진을 둘러싼다.

더듬이로 각을 맞추고 함성을 쳐대며
서로 함께 포기의 깃발 찢고
머리로이고 등으로 받치며 들어 올린다
거대한 바위가 발 없이 걸을 때
개미 수십 마리는 한 마리가 되어
메말라 담 쌓인 땅을 울린다.

이철우

2013년 문장21 신인문학상(시), 미디어 콘텐츠 실무 국정교과서 윤문 위원, 2012년 신라대학교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독서 교재 편찬 위원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보행자 신호등 점멸기능 필요

교통량이 많은 못골로 43번길(못골시장 입구)로 가는 신호불이 한정식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24시간 내내 점멸신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상적인 보행자 작동 신호체계로 변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민현(대연6동)

아름다운 문현여고 마을의 자랑

남구 문현1동에 위치한 문현여자고등학교가 작년 운동장이 완공되어 이용해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운동장 가운데를 둥그런 타원형으로 만들고 그 속에 금잔디를 심었는데 겨우내 갈색이던 잔디가 파릇파릇 돋아나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잔디를 따라 트랙을 만들어 아침·저녁 어르신들이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 옆 하단에 있는 작은 연못에는 구름다리와 물레방아, 비단잉어, 연꽃 등이 잘 어우러져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심신이 지칠 때 문현여고 운동장에서 마음을 힐링해보세요. 김양자(문현1동)

세금 고지서 글자 좀 크게

변화와 개혁이 물결치는 이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민감한 연말, 분기별, 월별로 받아보는 세금납입고지서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아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내가 내야 할 세금 납입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금납입금액이 너무 작게 표기되어 영수증을 받고도 몇 번이나 뒤적거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현재 표기되는 글자 크기보다 좀 더 크게 표기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달에 납부하실 금액은 1636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눈이 안 좋거나 나이든 분들이 크게 감동받을 것입니다. 강민수(감만2동)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캠퍼스 부지활용 빠른 시일 모색

'우암동 부산외대 캠퍼스의 공동화를 막자'는 감만동의 조은선씨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좀 더 넓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4년에 캠퍼스를 남산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남구 우암동 캠퍼스 부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학의 주 기능은 남산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곧 전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단일 캠퍼스로 안정이 되는대로 우암동 캠퍼스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유휴 공간이 많아진 만큼 우암동 부지의 보안과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대학이 새 캠퍼스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외대 경영지원팀 허영은>

■ 기자수첩

언론의 계모 질타에 죄 없는 계모들은 숨죽여 운다

얼마 전 계모 때문에 우리사회가 떠들썩했다. '시끄럽게 군다' '소풍 보내 달라 떼선다'고 10살도 안된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와 '울산 계모' 때문이었다. 특히 40세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법정 안팎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고성이 오갔고 신문과 방송도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자판기 판결"이라며 벌떼처럼 일어났다.

계모 관결이 있고 다음날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하나를 내놓았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7000건 가운데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를 차지했다는 것과 이에 반해 계모, 계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내용이었다.

인면수심의 두 계모가 한 짓은 천인공노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함은 말해 무엇하랴. 실제 한 짓에 비해 형량이 적기도 하다.

서가에 꽂힌 국어사전을 꺼내 계모라는 단어를 찾아 봤다. 계모(繼母)는 글자 그대로 '어머니를 잇는다'는 뜻이고 의모(義母)라고도 부른다. 의모는 '의로 맺어진 어머니'이다. 의붓어머니의 '의붓'도 비슷한 뜻이다. 어디에도 뺑덕어멈의 뉘앙스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모라는 말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고 심기가 불편해진다. 발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참에 계모라는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지만 부질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계모의 반대말은 생모, 친모가 아니라 뿌리 깊은 혈통주의이기 때문이다.

남녀가 이혼도장을 찍을 때 재산분할 못잖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대목이 양육권이다. "양육권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십중팔구 생모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절대적이죠." 가사전문 변호사인 남편 후배가 몇 해 전 술자리에서 한 말이다. 자녀의 인성 형성과 육아는 아빠보다 엄마가 낫다는 보육학과 모성은 본능이고 부성은 학습이라는 사회적 경험에 근거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우리 의식 밑바탕에 '아버지가 재혼하면 어린 자녀가 계모에게 시달릴지 모른다'는 콩쥐팥쥐식 설화에 의존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계모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분노 기저에는 '제 자식이었으면 그리 했을까'라는 계모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배어있고 두 사건을 계기로 명제의 일반화로 비화됐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봉건적 가치관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인 아동학대 사건이지 비정한 계모의 패륜사건만은 아니다.

우리는 OECD 가입국 중 이혼률 1위인 나라에 살고 있다. 덩달아 재혼도 늘어났다. 계모와 의붓자녀가 동거하는 재혼가정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귀한 피끌림이야 뭐라 할 게 못된다. 다만 이 일방적 혈육애는 '따라서, 남의 자식은 분명 함부로 할 거야'라는 오류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게 문제다.

어치피 언론은 이슈를 먹고 산다. 휘발성 강한 사안에 계모라는 뇌관이 작동하면서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냉철해야 했다. 저녁을 먹다 느닷없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슬그머니 채널을 돌려야 했을 이 땅의 애먼 계모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그렇찮아도 살얼음을 걷는 이들의 등에 주홍글씨를 새길 필요까지는 없다.

김옥련 기자

■ 독자의 일기

새싹들의 합창

남구 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동천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되니 파릇한 새싹 같은 신입생이 들어왔다. 이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으로 몰려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 흥미롭게 읽는다. 아직은 공공질서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신발을 신은 채 도서관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친한 아이들 끼리 떠들고 까르륵 웃기도 한다. 이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된 듯 즐겁다. 정말 파란 하늘을 보려 자라는 한 점 티 없는 새싹들이다.

내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이런 도서관은 본 적도 없거니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즐겨 보는 책들이 서가에 가득 차 있어 좋아하는 책을 마음대로 골라 읽을 수 있다. 이를 보고 있으면 너석들이 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인다.

거의 매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 아이들, 엄마가 아이에게 소곤소곤 책을 읽어주는 모습, 책장을 넘기며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는 아이들, 사서 선생님과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아이들, 책의 내용을 두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아이들, 학원 시간에 쫓겨 책을 대출해 가는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을 키운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과학자나 문학인이 될거라 확신하니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그들 틈에 끼어서 보내는 시간만큼 내 안에서도 새싹이 파릇이 돋아남을 느낀다. 따사한 봄 볕, 그 햇살 속에 이 새싹들의 합창이 울려퍼진다.

장무웅(대연4동)

나의 생각

4월의 신부되는 딸에게…

벚꽃이 지고 나면 완연한 봄 꽃 향연 속에 내 딸이 결혼하게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벌써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응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며 하루하루 기쁨을 주던 네가 어느덧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될 만큼 훌쩍 커버린 걸 보니 엄마의 콧등이 찡해옴을 느낀단다. 지인들 결혼식에서도 눈시울을 적시던 내가 정작 내 딸 결혼식 때는 감정을 잘 추스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구나.

바쁜 시간을 쪼개 사위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즈음의 네가 무척 대견스럽단다. 신혼집을 꾸미는 세심함은 전에 보지 못하던 면면들이어서 또 다른 딸의 모습에 짐짓 놀랄 때도 있단다.

결혼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는구나. 그 시절 엄마의 생각과 감정이 차분히 되살아나 엷은 미소를 지어 보게 본다.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함께 가는 여정의 시작이 곧 결혼인 만큼 남의 편(?)이 아닌 든든한 내 편을 얻었다는 생각으로 서로 소통하며 예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좋았던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해하고 노력해야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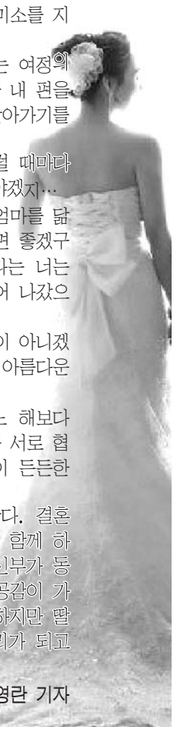
훗날을 위해 지금의 많은 것을 접어두려 했던 엄마를 닮지 말고 지금의 사랑과 젊음을 후회 없이 누렸으면 좋겠구나. 현실에 급급했던 아쉬운 기억을 남기기 보다는 너는 좀 더 넓고 자유로운 사고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면 한단다.

후회 없도록 지금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생각을 잘 나누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좀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졸업을 앞두고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부부가 서로 협력하며 슬기롭게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 변함없이 든든한 내 딸의 모습을 기대해 볼께….

아빠와 엄마의 마음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결혼이란 시집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니만큼 식장에서는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네 의견에 공감이 가는구나. 모두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고들 하지만 딸이 없는 시댁 어른들께도 이쁨 많이 받는 며느리가 되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4월 어느 봄날 엄마가>

주영란 기자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품>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